

어버이수령님 령도따라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새 조선을 일떠세웠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끌어 끊임없이 전파되는 대비, 대혁신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열의로 온 나라가 끝내고 있다.

어디서나 자강력제일주의를 만족하는 보험으로 풀어위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물파구를 열어놓으려는 비장한 업의를 안고 200일전투에서 기세를 울리는 천무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다. 누구를 만나보아도 자기 힘, 자기 손으로 기어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비약적인 혁신, 눈부신 기적을 알아 오겠다는 신심과 학관에 넘친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조선혁명의 역사자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역사이다.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인 우리의 미더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열화같은 애국충성파·건인불발의 투쟁정신을 제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들바탕의 평도밀도에 자강력으로 민족으로부터 서서 나리를 건설하고 계획우에서 사회주의를 일떠 세웠으며 고단과 시련속에서 우주강국, 궁지높은 역사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밀에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마련한 자력자강의 정신이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안아온 눈부신 기적과 창조의 열매는 얼마나 거대한것이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대민족의 존엄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무관 조국, 무관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해방후 예하나 다행없는 이 땅우에 제집으로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달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

건국의 나날에 탄변진 자력자강의 불길

여온 우리 인민은 사상적으로 너무나 위험에 처져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본을 따기 위해 어기저기 뛰어다녔다.

임계식민지통치하에서 일어난 도제 나라 말을 할수 없었고 땅이 어려워도 물길이 없었으며 자기 이 름에서도 빼앗겨야 했던 물방울인 민에게 친정한 정치적권리와 행복한 생활을 안겨 주시고 자강력의 강자로 기워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었다.

천리마제 강원 할기암소에서 그에 대해 드릴수 느낄수 있다.

천리마제 강원 할기암소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70여년전 우리 당창건을 하루 앞두고, 그려운 고향

민음의 교시에서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나리의 주인된 자작 세워오고, 세손으로라는 말의 참의미를 깊이 새기었다.

하기에 강선의 동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판별하기 위한 두 행을 힘있게 벌려 일제가 쫓겨기면서 조선사람의 힘과 기마로써는 10년이 걸리도록 다시 일어설수 없다고 하면 세 강소에서 물과 무당통안에 청기로를 복구하여 그에 2월에 첫 죄물을 뿐이었는데 이때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3(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및 나에게 수행하는 농화

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 계획인 주체

자강력제일주의를 200일전투승리의 열쇠로 틀어쥐고나가자

자강력의 강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강원도수산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당 제 7차대회 결정을 높이 말하고 강원도수산관리국이 전진의 보폭을 험하게 내걸고 있다. 5월 한달 동안의 물고기방 이실적을 놓고보아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를 기록하였다.

이 차량한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올해 들어와 이곳 관리국이 멀리온 무정파장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내중을 자강력의 강자들로 얹세계 키워가는 강원도수산관리국 당위원회의 혁신적인 사업기운은 충성의 70일전투의 철학진군의 나날에 그 위력을 확인케 하였다.

도수산관리국이 내세운 충성의 70일전투목표는 참으로 빛태하였다.

두척의 80kg짜리 배포를 통해 일군들이 기수를 높여나갈 때마다 이곳에 대한 힘과 재해에 대한 힘을 넣었다.

지난 3월초 한낮이 지날무렵

팔을 훨훨 풀리며 송도원수산사업소에서의 철색 송이양이 태평의

한밤에 펼쳐졌다.

주어진 조건만을 놓고본다면

할수 없다는 절론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당위원회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당위원회는 문제해결의 방도를 자강력제일주의 기준에 맞추는 철학으로 찾았다.

당위원회 일군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

풀이 들고나갈 때 대한 당의

승리의 힘을 높여나갈 때마다

온 관리국안에 자력갱생의 열풍을

세 차례 일으켜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두엇보라면 저 일군들이 기수

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를어주는

데 선처적인 힘을 넣었다.

지난 3월초 한낮이 지날무렵

팔을 훨훨 풀리며 송도원수산

사업소가 8개월은 실시 절려

한밤에 펼쳐졌다.

당위원회는 또한 아래단위를

한성 등 큼직한 목표만 해도 심

업소구내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

어거나 되었다.

지난 시기같으면 업두도 내지

못할 아름한 파제들이었다.

고기 배전 조만 해도 그러

했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철관이며 유통망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한체당 6개월은 살히 걸려야

하는 기존공식을 깨버리고 두

척의 고기배를 70일동안에 못

국방과학부문의 승전포성에 화답하여 영웅조선의 신화를 계속 창조하자

새로운 전략무기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하고 더욱 들끓는 련명거리건설장

련명은 승리를 부른다

조선인민군 김영근 소속부대에서

그야말로 기적이다.
불과 수십일만에 사회주의강국의 무쁜 늑장을 향해 단숨에 치솟아오르는 힘십파 원통식, 유선형 등 다양한 형식의 초고층, 고층, 디자인 살림집들…
마치도 우리의 새로운 천락루 기들이 원주민의 숨통을 거누고 있는듯 마음은 절로 후련해졌다.

지금 련명거리건설자들은 국방과학부문의 승전포성에 화답하여 영웅조선의 신화를 계속 창조해 잘 일념에 넘쳐 힘차게 나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끝나고, 그리고 운송, 소리에 떠발둔듯 혼합물이 편 속 보상되어 살림집들을 시간이 다르게 솟구쳐있다.

『부강조국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끝나고, 그리고 운송, 소리에 떠발둔듯 혼합물이 편 속 보상되어 살림집들을 시간이 다르게 솟구쳐있다.』

다행히, 편발적으로 새 기적, 새 기록이 창출되고 있는 련명거리건설장에서 우렁한 승전의 포성을 마련해가는 불꽃은 천후

가 떨어지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영근 소속부대 장병들이 말고있는 대성 5·1—4·2호동 살림집건설부장에 서보시라.

한쪽에서는 자동조종할수 있는 스파크가 저절없이 떠른 속도로 오르내리고 다른 곳에서는 청근교정기가 침없이 가동하며 꿈은 청근을 풀풀이 풀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혼합기의 고르로운 소리에 떠발둔듯 혼합물이 편 속 보상되어 살림집들을 시간이 다르게 솟구쳐있다.

지난 6월초 광조공사를 찬성해나가면서 이곳 부대장병들은 승리를 더욱 확신하며 내부미장전부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사실 시공력량 대 공사량을 따져볼

때 미장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명령판찰에서 절대성, 무조건 전술을 신념화, 망설임과는 무관한 우리의 미더러 군인건설자들은 불가능을 몰랐다.

부서운 정신으로 훈련장을 떠나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서슴지 않고 어려운 힘든 물이네고 진격의 훈련장을 벗어나갔다. 이것은 그때로 말없는 선동이 되고 혁신의 힘들이 되어 련명거리건설장에 또 하나의 고충 살림집 광조가 우뚝 일어서게 하였다.

이처럼 해두산혁명강군의 담찬 기상과 용맹에 의해 련명거리건설장에서는 예일과 같이 새인을 둘러우는 기적과 용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그렇다. 우리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서 한계를 모르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며지않아 지역지강의 힘에 떠밀려 우뚝 일어서는 련명거리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 당의 헌명한 명도에 의하여 거장한 창조물들이 술을 이를 조국의 래일을 그려본다.

련명은 승리를 부르고있다.

볼수록 미더웠다. 안명삼, 최명남 등부들은 한시도 사라지장을 떠나지 않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서슴지 않고 어려운 힘든 물이네고 진격의 훈련장을 벗어나갔다. 이것은 그때로 말없는 선동이 되고 혁신의 힘들이 되어 련명거리건설장에 또 하나의 고충 살림집 광조가 우뚝 일어서게 하였다.

이처럼 해두산혁명강군의 담찬 기상과 용맹에 의해 련명거리건설장에서는 예일과 같이 새인을 둘러우는 기적과 용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그렇다. 우리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서 한계를 모르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며지않아 지역지강의 힘에 떠밀려 우뚝 일어서는 련명거리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 당의 헌명한 명도에 의하여 거장한 창조물들이 술을 이를 조국의 래일을 그려본다.

련명은 승리를 부르고있다.

조선인민군 박경욱 소속부대에서

의 전사들이었다.

5·6—1·10호동의 모든 천후장에서 눈부신 전설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일대 폐쇄전이 벌어졌다.

자동차들이 공사장에 몰려들었고, 폐쇄가 산더미같이 쌓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명령받은 병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의지를 배晦하면서 그처럼 불리한

환경에서 단 4·8시간동안에 기초를 놓았으며, 그 이후에는 7일 0시, 드디어 풍물격차이가 개시되었다.

천근조립을 막은 군인건설자들은 3개 층이상의 광조를 와

드는 바탕에 비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명령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대양공전을 향해 또 한 차례의 승전보고를 마음 속으로 삼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대로 산악길이 막혀버렸거나 물불을 찾기 위해 부단히 새 기록을 세우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충족시켰다.

우리 당의 헌명한 명도에 의하여 거장한 창조물들이 술을 이를 조국의 래일을 그려본다.

련명은 승리를 부르고있다.

이틀동안에

일어난

기적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즐음한 복수결의모임

근로단체들에서 진행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즐음하여 23일 근로단체들에서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하였다.

신천박물관, 수산리계금교양관 교양당에서 각각 전령원 모임들에서는 청년동맹, 농군군, 청년, 판계부문 일군들, 청년학생들, 농어민군로자들, 청년원들이 참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 원회 비서의 보고에 이어 신천군 청년동맹장 동창원 신중심, 황남공업대학 학생 김정혁, 청년농생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한 백년 속적 미제침략자들을 죽탕해버릴 명적의 의지와 용감이란 꿈이 번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1950년 6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흐리기 위해 침략하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식 기 신생원에서 강행한 살륙만행을 토론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통합기구 공동 주체혁명의 후퇴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장장한 후퇴에서 당시의 믿음직한 척후대, 즉 측부대로서의 시명과 일부를 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군로자들과 농군영원들의 복수결의모임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민행 속에서 살아난 김정은의 발언에 이어 신천군 화성리 초금근농민 위원장 유통근, 밭습련장, 밭습련장 농장장 정연희가 토론했다.

그들은 미제가 일으킨 선전전쟁은 전조선을 저지로 영원한 학살자로 위한 가장 파렴치하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었으며 전대미문의 피에 젖은 대학살전쟁이었다고 말하였다.

당시 신천군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380명을 인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마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한 미제이같은 괴악한 살육만행을 토론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땅에서 활약한 미제이같은 괴악한 살육만행을 토론했다.

그들은 무고한 인민과 농민들을 짐승도 낮을 끌릴 땅으로 무참하게 대량학살한 침략자자

미제의 죄악을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새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2제3선창으로 모여 전선에 힘을 모아온 청년원들은 대각통을 박살을 냈던 심정으로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용기와 헌신을 출발해 기어이 풀리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너명일군이라고 하며, 애국자의 안해하고 하여 칼 편적죽이고 남편과 아들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내고 원호미를 많이 바쳤다고 하여 코를 훠여 끌고다녔으며 밤개기의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고 하면서 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땅진 야수의 무리, 인두집을 쓴 승냥이 미제는 한한술을 먹고 살수 없는 철원지원주

라고 말하였다.

수산평에 기어들어 40여일밖에 앉았던 기간에 이곳 주민의 3분의 1을 야수적방법으로 무

살해한 원로원들의 죄행은 우리 인민에게 용기와 헌신을 끌어온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용기와 헌신을 출발해 기어이 풀리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너명일군이라고 하며, 애국자의 안해하고 하여 칼 편적죽이고 남편과 아들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내고 원호미를 많이 바쳤다고 하여 코를 훠여 끌고다녔으며 밤개기의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고 하면서 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땅진 야수의 무리, 인두집을 쓴 승냥이 미제는 한한술을 먹고 살수 없는 철원지원주

라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며 일제반미 대결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그 어떤 역경에서도 당파 수령을

절차용하는 성세가 되고 땅번역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들에서는 복수결의식을

방송되었으며 당파 수령을 결사

옹위하고 미제 흘린 우러

리 인민의 피값을 기어이 달고

나고아이랑 굳은 의지가 달긴 구호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조선중앙통신】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즐음한 청년동맹원군들과 청년학생들이 복수결의모임 진행

농업전선의 눈과 귀가 되여

기상수분국에 서

다고 생각하며 놀 마음을 희천방에 두고 사는 이들이다.

오늘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계속하자면 있을수 있는 자연피해를 미리미리 막을수 있

도록 기상판축과 예보를 신속정화하여 하여야 한다.

더우기 농업전선의 눈과 귀가 되여 기상상태를 정확히 추정하고 그에 기초한 일기예보의 판성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일군들과 예보원, 연구사들은 혼천기상수분판축소들의 일기감시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상판축의 시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밀도를 높이었으며 과거로부터 협재까지의 관측실황 및 수치에 보, 현업에 보자료기지지를 정연하게 구축하고 판축자료들의 실시간 감시 및 분석체계와 과거

량심파 현신으로 걷는 강좌장 흥형기동

선군시대 모범강연 강사의 영예를 지니

대학강의를 다시 받는 심정이었다고 하면서 빙글풀려고 빙기는 제자들속에 한두명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알아보니 머칠째 출근하지 않는다는것이었다.

(대학)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원군의 어제가 참 무겁습니다.』

정성의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헌터기동부의 일감은 더욱 많아졌다. 경과사업과 대학초급직영원장사업도 혁신해야 했으며 진중연선전을 통해 도함을 거하려고 했지만 그는 밤을 잊고 일达标을 하였다. 해당 단위에 깃들어있는 체계적인 팀의 불멸의 영업도업제70일전투도, 지난 70일전투, 100일전투에서 철도운수부문을 포함하여 철도운수부문을 통영하며 출연제강을 풀들이 만들려 하였다. 그의 일실은 대단했다.

『제4차 미지막 한사람까지도 찾다가 당정책을 해설해주어야 할 당초급선전일군이 아닙니까. 대구나 그들은 우리 세자를입니다.』

깊은 밤 찾아와 대학시찰처럼 당정책을 하나하나 해설해주는 스승으로 세자는 머리를 떨지 못하였다. 헌터기동부는 가능성에 흥미로워졌다. 그날 밤은 대단했다.

그러나 어느날 저녁 험여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와 뒤에 그에게는 그제자는 혁신자가 되

순간 모ട불을 웃돌이 쓴것처럼 얼굴이 말아올랐다. 험여시간에 대충 일상에서 강연할 생각을 하니 두려워졌다. 교육자로서의 험여상상가에게 앞서온 청년

방법으로 전화문도 하면서 강연준비를 풀어놓았다. 그는 그날처럼 험여상상가에게는 대단했다.

그는 이렇게 22년간 변함없는 걸을 걸어왔다. 그걸 알아보니 당파 조직안에 제자들을 끌어들이는 책임자로서의 순결한 향실의 길,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재체계를 넘어서 전화문도 하면서 강연준비를 풀어놓은 그였지만 그날처럼 당황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이렇게 22년간 변함없는 걸을 걸어왔다. 그걸 알아보니 당파 조직안에 제자들을 끌어들이는 책임자로서의 순결한 향실의 길,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재체계를 넘어서 전화문도 하면서 강연준비를 풀어놓은 그였다.

그는 그날처럼 험여상상가에게는 대단했다.

